

목격자 기억 정확성에 대한 전문가 증언이 배심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조소연* 조은경
한림대학교

본 연구는 목격자의 기억 정확성에 대한 전문가 증언이 배심원의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2004년도 8월 26일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고 대법원에서 실시한 강도살인사건 모의배심재판을 찍은 비디오를 가지고 모의배심원인 대학생 총 16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1에서는 모의배심원들이 전문가 증언을 읽었을 때와 읽지 않았을 때 목격자 증인에 대한 배심원의 신뢰도와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배심원들은 전문가 증언을 읽지 않은 집단보다 검사 측 전문가 증언을 읽은 집단에서 배심원들이 목격자를 더 신뢰하였고, 더 많은 배심원들이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반면 변호인 측 전문가 증언을 읽은 집단과 전문가 증언을 읽지 않은 집단에서는 목격자 증인에 대한 배심원의 신뢰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가 증언을 읽지 않은 집단보다 변호인 측 전문가 증언을 읽은 집단에서 더 많은 배심원들이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연구 2에서는 전문가 증언을 한 측에서만 내세웠고 전문가 증언에 대한 반대신문의 강도를 달리했을 때 목격자 증인에 대한 배심원의 신뢰도와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이 연구 1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변호인 측 전문가 증언에 대한 검사의 반대신문이 약했을 때보다는 강했을 때 목격자에 대한 배심원의 신뢰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검사 측 전문가 증언의 경우도, 변호사의 반대신문이 약했을 때보다는 강했을 때 목격자에 대한 배심원의 신뢰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서는 비율차이가 작지만 검사 측 전문가 증언에 대한 반대신문이 약했을 때보다는 강했을 때 무죄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변호인 측 전문가의 경우에는 전문가에 대한 반대신문이 약했을 때보다 강했을 때 유죄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구 3에서는 검사 측 그리고 변호인 측 모두 전문가 증언이 있고 이들 전문가 증언에 대한 반대신문이 모두 있을 때 배심원의 의사결정이 연구 2와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문가 증언에 대한 반대신문은 목격자에 대한 배심원의 신뢰도와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전문가 증언, 반대신문,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 목격자 신뢰도, 전문가 증언 신뢰도

한국에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 관한 법률』 제 2조(정의)에 의거하면, 국민참여재판이란
된다. 2006년 7월 1일에 제정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말하며 배심원은 이 법에

* 교신저자 : 조소연, (200-702)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39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 (010) 8121-9890,
E-mail : zsybi@hallym.ac.kr

따라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지칭한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하여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절한 형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장이 사건을 호명하고 소송관계인의 출석을 확인하는 것으로 재판이 시작된다. 재판장은 배심원들에게 배심원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설명을 한다. 이 설명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심리과정에 들어간다. 검사와 변호인은 각각 모두진술을 통해 사건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이야기체로 배심원들에게 설명한다. 그런 다음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증인을 법정에서 신문한다. 이 과정을 증거개시라 한다. 이 증거개시과정이 끝나면 검사와 변호인의 최후진술이 이루어진다. 최후진술은 심리의 마지막 과정으로, 검사와 변호인은 앞에서 보여준 증거 또는 증인의 증언들을 배심원들에게 이야기체로 정리해주며 자신들의 주장을 피력한다. 즉, 검사는 피고인이 유죄라는 것을,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죄라는 것을 주장한다. 최후진술이 끝나면, 재판장은 배심원에게 평의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배심원들이 평의 및 평결과정에 들어가게 한다. 평의는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이며 평결은 평의를 통하여 확정된 배심원의 최종 판단 결과를 의미한다.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면, 검사와 변호인들은 일반인들로 구성된 배심원들 앞에서 피고인의 유죄 또는 무죄를 밝히기 위해 치열한 법적공방을 하게 될 것이다. 재판과정 중에서 가장 핵심은 사건의 진위를 밝히는 증거개시과정이다. 그리고 사건의 진위를 밝히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물리적 증거와 증인의 진술이다. 그러나 물리적 증거가 범인을 밝히는데 불확실한 경우, 증인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바로 직결될 수 있다. 특히, 범인을 목격한 목격자 증인의 증언은 피고인의 죄를 결정짓는데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목격자 증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배심원은 목격자의 증언을 약 80% 신뢰한다고 한다(Wells, Lindsay, & Ferguson, 1979). 그리고 목격자가 자신의 증언에 대해 확신에 차있고 자신있게 보일 때는 그 증언에 대한 배심원들의 신뢰도가 더 증가한다고 한다(박광배, 2004). 이는 배심원뿐만 아니라 검사, 변호인 그리고 다른 법조계 사람들도 자신감있는 목격자에 대해 지나치게 신뢰하는 경

향이 있다. 그러나 미국 법무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NIJ)에서는 범인을 목격한 목격자 증인의 증언이 부정확할 수 있다고 밝힌다. NIJ는 강간, 살인, 유괴 등 중대한 범죄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40명의 사람들을 DNA 분석하였다. 이들은 1990년대 DNA 분석이 나오기 이전에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의 DNA 분석 결과, 40명 모두 부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명의 사람들 중에 36명(90%)은 1명 이상의 목격자들이 범인을 잘 못 식별하여 부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Connors, Lundregan, Miller, & McEwan, 1996). Innocence Project¹⁾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잘못된 범인식별절차는 목격자의 기억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목격자가 범인을 회상하는 과정에 혼선을 주어 목격자가 범인을 올바르게 식별할 수 없게 만든다고 보고한다. 이런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들은 목격자가 잘못된 범인식별절차에 따라 범인을 지목하였을 때도 기준에 가지고 있던 확신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배심원들의 잘못된 확신을 바로잡고 목격자의 기억에 대한 올바른 신념을 형성시켜줄 수 있는 전문가의 증언은 매우 중요한 법적, 사회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특히, 목격자 기억은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심리학자 전문가들이 법적인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게 될 것이다.

목격자의 기억 정확성에 대한 전문가 증언

사회과학 연구들은 전문가 증언이 배심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관된 연구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Loftus(1980)의 연구에서는 목격자의 범인식별에 대한 전문가 증언이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총 240명의 대학생들은 배심원으로 역할 수행을 하였다. 배심원들의 받은 목격자의 범인식별 신빙성에 관해 변호인 측에서 내세운 전문가 증언이 있는 진술문을 읽었고 나머지 받은 전문가 증언이 있는 진술문을 읽지 않았다. 그 결과, 전문가 증언을 읽지 않은 배심원집단보다 전문가 증언을 읽은 배

1) Innocence Project는 국제 소송 및 공공정책조직이다. 이 조직은 DNA 분석을 통해 부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결백을 증명하고 잘못된 형사사법시스템을 개정하는 조직이다.

심원집단이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평결을 내릴 때 목격자의 증언에 비중을 덜 두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유죄평결을 더 적게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Wells, Lindsay 그리고 Tousignant(1980)의 연구에서는 전문가 증언이 목격자 증언에 대한 배심원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실험참가자들은 배심원 자격 조건이 되는 192명의 대학생들이며 배심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시받았다. 실험참가자들의 반은 모의재판비디오와 함께 심리학자 전문가 증언이 담긴 비디오를 보았고, 나머지 반은 모의재판비디오만 보았다. 비디오에 나온 심리학자 전문가는 변호인 측에서 내세운 증인이었고 변호인은 전문가 증인에게 목격자 기억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물었다. 이 물음에 대해 변호인 측 전문가 증인은 사람들이 목격자의 증언을 지나치게 믿는 경향, 목격자의 자신감과 확신감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경향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들을 제시하였고 목격자가 범죄를 목격한 상황적 요인들이 목격자의 기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증언하였다. 그 결과, 이와 같은 전문가 증언을 들은 배심원집단은 전문가 증언을 듣지 않은 배심원집단보다 목격자의 자신감과 확신감에 대한 신뢰가 크게 감소하였고 목격자의 증언을 지나치게 믿는 경향도 줄어들었다고 한다. Cutler, Penrod 그리고 Dexter(1989)의 연구에서는 538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목격자의 확신도가 강했을 때와 약했을 때에 전문가 증언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목격자의 확신도가 강하다는 것은 목격자가 법정에서 자신이 지목한 범인이 100% 확실히 맞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 반면 목격자의 확신이 약하다는 것은 목격자가 법정에서 자신이 지목한 범인에 대해 망설임을 보이는 것이다. 배심원으로 참여한 대학생들은 실제 재판과정을 찍은 비디오를 보았고 재판에 나온 5명 증인의 증언을 모두 들었다. 검사 측에서 내세운 증인은 강도 피해자(목격자)와 경찰관이었고, 변호인 측에서 내세운 증인은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 심리학자 전문가였다. 심리학자 전문가는 목격자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예를 들면 무기효과, 목격자가 받은 스트레스 영향, 라인업 절차시 경찰관의 암시 등을 증언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 측은 전문가 증인에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신뢰성과 목격자의 스트레스 측정 여부 등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 증언을 듣지 않은 배심원집단보다 전문가 증언을 들

은 배심원집단이 피고인에 대해 유무죄 평결을 내릴 때 목격자의 증언이나 확신도에 덜 가중치를 두었고 오히려 전문가가 증언한 내용에 더 판단의 가중치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목격자 기억 정확성에 대한 전문가의 증언 내용

Fox와 Walters(1986)의 연구에서는 목격자의 확신도(강함 vs 약함) × 전문가의 증언내용(일반적 vs 구체적)이 배심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Fox와 Walters의 연구에서 제시된 일반적인 전문가 증언 내용은 목격자의 기억이 정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인간의 기억과정, 인간의 기억구조를 중심으로 증언을 하였고, 구체적인 전문가 증언 내용에서는 선행연구들에게 밝혀진 체계적인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목격자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12개의 요인들 1) 물리적인 요인(거리, 빛, 신속한 움직임) 2) 범인을 관찰한 시간 3) 정보를 인출하기까지의 지연시간 4)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 5) 무기 효과 6) 범인 얼굴의 특이점 여부 7) 범인식별절차 소개 편향 8) 범인식별과정 동안 경찰관의 암시(목격자의 피압시성) 9) 무의식적인 전이 현상 10) 공범 수 11) 폭력의 부정적인 영향 12) 범죄 지속시간을 중심으로 증언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가 일반적인 내용을 증언했을 때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증언했을 때 배심원들은 전문가의 증언을 더 신뢰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더 확신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결과들을 통해 전문가 증언의 내용, 즉 전문가 증언이 배심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목격자에 대한 배심원의 잘못된 확신 또한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결과들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미국의 배심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한국 배심원들도 이러한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는지 알 수 없다. 둘째, 변호인 측에서만 전문가 증언을 내세웠기 때문에, 검사 측에서 내세운 전문가 증언이 있을 때 어떤 양상을 나타내는지 알 수 없다. 셋째, 기존 선행연구들은 반대신문의 강도가 배심원의 의사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전문가 증언은 목격자 증언에 대한 배심원의 신뢰도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만큼 전문가 증언에 대한 반대신문

은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어떤 반대신문이 전문가 증언에 대한 배심원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지 알 수 없고 이들 반대신문이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유무죄 판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배심원자격이 있는 한국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증언이 목격자에 대한 배심원의 신뢰도와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 내세운 전문가뿐만 아니라 검사 측에서 내세운 전문가까지 포함하여 목격자에 대한 배심원들의 신뢰도와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증언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반대신문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반대신문의 강도를 달리했을 때 목격자에 대한 배심원의 신뢰도와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연구 1에서는 전문가 증언에 대한 반대신문이 없는 전제조건 하에, 전문가 증언이 제시된 집단과 전문가 증언이 제시되지 않은 집단을 비교하여, 목격자 증언에 대한 배심원의 신뢰도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목격자의 증언과 전문가의 증언이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유·무죄를 결정짓는데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2에서는 검사 측에서만 전문가 증언을 내세웠을 때, 변호인 측에서만 전문가 증언을 내세웠을 때 그리고 이들 각각 전문가 증언에 대해 반대신문 강도를 달리했을 때 목격자에 대한 배심원의 신뢰도와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이 연구 1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구 3에서는 검사, 변호인 양측 모두 내세운 전문가 증언이 있고 이들 각각 전문가 증언에 대한 반대신문 강도를 달리했을 때 목격자에 대한 신뢰도,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이 연구 2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1

연구목적

전문가 증언이 제시된 집단과 전문가 증언이 제시되지 않은 집단 비교를 통해 배심원들이 목격자의 증언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목격자의

증언과 전문가의 증언이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유무죄를 결정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증언이 어느 측에서 나왔는지 즉, 검사 측에서 내세운 전문가인지 아니면 변호인 측에서 내세운 전문가인지에 따라 배심원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방 법

피험자

본 연구는 강원도 춘천 소재의 H대학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실험참가자들은 '배심원의 의사결정 특징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심리학 수업을 듣는 총 45명의 실험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배심원 자격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 즉, 만 20세 미만의 실험 참가자는 모집단계에서 제외되었다. 실험참가자들 중 여성배심원은 32명(71.1%), 남성배심원은 13명(28.9%)이었고 연령대는 20~24세가 38명(84.5%), 26~34세가 6명(13.3%), 40세가 1명(2.2%)이었다.

절차

연구 1의 실험설계는 피험자 간 설계이다. 총 3조건으로 전문가의 증언을 읽지 않는 배심원집단, 검사 측에서만 내세운 전문가의 증언을 읽는 배심원집단(조건 2), 변호인 측에서만 내세운 전문가의 증언을 읽는 배심원집단(조건 3)으로 나누었다. 실험참가자들은 각각의 조건에 무선택당되었으며 모든 실험은 실험실에서 진행되었다. 한번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 수는 2~7명이며 소요 시간은 총 70분이다. 각각의 조건에 할당된 실험참가자들은 공통적으로 2004년도 8월 26일에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고 대법원에서 실시한 강도살인사건 모의배심재판을 찍은 비디오를 보았다. 전문가 증언을 읽는 배심원집단은 재판비디오를 보고 난 후 각각의 조건에 해당되는 전문가의 증언이 담긴 진술문을 읽었다. 전문가 증언을 다 읽은 뒤에는 재판내용과 전문가 증언 내용에 대한 기억력 평가 설문지, 목격자 증언에 대한 배심원의 신뢰도를 묻는 설문지,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유무죄를 묻는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전문가 증언을 읽지 않는 배심원집단은 재판비디오를 보여주고 난 다음 위와 같은 내용을 묻

는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실험 처치

강도 살인 사건 재판 비디오

본 연구에서는 2004년 8월 26일에 시행된 강도살인사건 모의재판을 찍은 비디오를 사용하였다. 재판에서 나온 증인은 총 5명이다. 검사 측에서 내세운 증인은 목격자인 피해자 딸과 공원관리원, 경찰관, 음성분석전문가이고 변호인 측에서 내세운 증인은 피고인의 친구, 당구장 주인이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모의배심원들에게 5명의 증인을 모두 보여주지 않고 전문가의 증언 영향력을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목격자 증인 1명의 증언만 담긴 비디오를 보여주었다. 전문가의 증언 영향력을 가장 크게 보여줄 수 있는 목격자 증인은 자신이 범인을 정확하게 기억하였고 범인식별과정에서 자신이 지목한 용의자가 확실히 범인이 맞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목격자이다.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목격자로 피해자 딸을 선택하였고 모의 배심원들은 검사와 변호인의 모두진술, 증인인 피해자 딸에 대한 검사와 변호인의 신문과정, 검사와 변호인의 최후진술이 담긴 비디오를 보았다.

이 재판 비디오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머니와 딸이 쇼핑을 하기 위해 양재서울시민의 숲을 약속장소로 정하고 만난다. 딸을 만난 어머니는 딸에게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양재서울시민의 숲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들어간다. 그러나 5분이 지나도 어머니가 나오지 않자 딸은 화장실로 어머니를 찾으러 갔고 이 때 여자화장실에서 나온 어떤 남자와 마주치게 된다. 그 남자는 딸을 보고 ‘이곳은 여자화장실이 아니니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을 하였고 딸은 ‘이곳이 분명 여자화장실이 맞다’고 서로 실랑이를 벌인다. 이를 수상하기 여긴 딸은 남자를 밀치고 여자화장실로 들어간다. 딸은 화장실에서 칼에 찔려 쓰러져있는 어머니를 발견하고 그 후에 그 남자를 범인으로 지목한다. 딸은 그 남자가 어머니를 죽이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화장실이 구석진 곳이고 당시 주변에 사람이 없었으며 여자화장실이라고 우기는 그 남자를 수상히 여긴다. 사건 다음날 딸은 S경찰서에 가서 그 남자에 대한 몽타주를 작성하게 된다. 그 몽타주에서 나온 범인의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경찰관은 그 주변을 반복수사하여 몽타주와 비슷하게 생긴 남자를 잡게 된다.

그리고 딸은 범인식별과정을 통해 이 남자를 범인으로 지목한다.

이 재판의 쟁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목격자인 피해자의 딸은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것을 100% 확신하고 있다. 검사 측은 몽타주와 피고인이 비슷하고 범인식별과정에서 목격자가 범인을 확실하게 지목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강도살인사건 범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범인식별과정에서 목격자가 범인 선택 시 망설였다는 점과 몽타주와 피고인이 비슷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제대로 범인을 볼 수 있었는지를 들어 목격자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변호인 측은 목격자가 범인 지목을 잘 못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무죄라고 주장한다.

전문가 증언

전문가 증언은 주신문을 통해 전문가 소견을 밝히는 것이다. 전문가는 재판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목격자 기억 정확성에 관해 다당한 연구자료들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소견을 말한다. 연구에서 사용된 전문가 증언은 Fox와 walters(1986)의 연구에서 제시한 요인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표 1은 Fox와 walters(1986)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요인들 중 이번 사건 내용과 관련 있는 요인들을 나열한 것이다. 검사 측 전문가 증언과 변호인 측 전문가 증언은 표 1의 5 요인들에 대해 증언을 한다. 검사 측 전문가 증언과 변호인 측 전문가 증언이 같은 요인들을 가지고 증언한다고 해도 요인에 대한 전문가 증언의 의견은 다르게 구성되었다. 즉, 같은 요인에 대해 검사 측 전문가의 의견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구성되었고 목격자의 기억이 거의 정확하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반면 변호인 측 전문가의 의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구성되었고 목격자의 기억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다. 전문가 증언은 재판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면처럼 스크립트를 읽었으며 피험자들에게 앞의 재판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전문가 증언 내용이 담긴 진술문을 읽게 하였다.

2) 형사소송법 제 161조 2항에 의거하면 주신문이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하는 신문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는 검사 또는 변호인을 말한다.

표 1. 본 연구에 사용된 전문가 증언의 구성

요 인	내 용
1. 목격자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반적으로 목격자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하고 이번 사건의 목격자에게는 어떤 요인들이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한다.
2. 목격자가 범인을 관찰한 시간	목격자가 범인을 관찰한 시간이 목격자의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한다.
3. 목격자의 정서적 충격 영향	목격자가 사건의 간접적인 피해자인 만큼 이에 대한 정서적 충격, 스트레스가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한다.
4. 범인식별과정에서 제시된 용의자 수	범인식별과정에 제시된 용의자 수에 따라 범인에 대한 목격자의 기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한다.
5. 목격자의 확신도-기억 정확성 간 관계	목격자가 자신있게 범인을 확신을 하는데, 실제로도 목격자가 범인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각각의 전문가 증언 구성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신문내용과 길이, 이들 신문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 길이 모두 동일하였다. 그리고 본 실험에 앞서 심리학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한 파일럿을 통해 검사 측 전문가와 변호인 측 전문가의 전문성, 각각 전문가 증언 내용에 대한 이해도, 설득력에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밝힌다($t=-.901$, $t=-1.47$, $t=-.94$).

측정도구

아래의 측정도구들은 선행연구들에서 구성한 설문지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기억력 평가

기억력 평가는 모의배심원들이 재판내용과 전문가의 증언 내용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재판과정은 모의배심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디오로 제시되었으나 전문가 증언의 경우에는 스크립트 형식으로 된 진술문을 모의배심원들에게 읽게 하였기 때문에 이들 처치의 상대적인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평가를 실시하였다. 기억력 평가는 크게 재판내용에 대한 기억력 평가와 전문가 증언내용에 대한 기억력 평가를 하였다. 재판내용에 대한 기억력 평가는 본 강간살인재판비디오에서 검사가 주장한 내용,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 목격자가 주장한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를 모의배심원들에게 맞추도록 하였다. 전문가 증

언 내용에 대한 기억력 평가는 전문가가 언급한 내용 즉, 목격자의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 전문가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과 전문가가 언급한 내용을 맞추도록 하였다. 전문가 증언을 읽지 않는 배심원집단은 재판내용에 대해 묻는 기억력 평가 질문지만 받는다. 전문가 증언을 읽는 배심원집단은 재판내용에 대한 기억력평가 질문지와 전문가 증언 내용에 대한 기억력평가 질문지를 같이 받는다.

총 재판내용에 대해 묻는 질문 9개, 전문가 증언 내용에 대해 묻는 질문 6개로 하여 이를 합친 개수를 총점으로 합산하였다. 점수 범위는 0점~15점이다. 전문가 증언이 없는 배심원집단은 재판내용에 대해 묻는 기억력 평가만 하였기 때문에 점수 범위는 0점~9점이다.

신뢰도 평가

신뢰도 평가는 7점 척도를 사용하여 목격자에 대한 배심원의 신뢰도를 1점(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부터 7점(매우 신뢰한다)까지 평가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유·무죄 결정

이 평가 질문지는 피고인이 유죄인지 또는 무죄인지를 모의배심원에게 묻고 모의배심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자신의 유무죄결정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유무죄 결정 확신도는 7점 척도를 사용하여 1점(전혀 확신하지 않는다)부터 7점(매우 확신한다)까지 평가하였다.

표 2. 목격자 증인에 대한 배심원의 신뢰도

	전문가 증인 없음	검사 측 전문가 증인	변호인 측 전문가 증인	F	Sig.
목격자 증인 신뢰도	3.85(1.45) ^b	4.53(1.36) ^a	3.93(.80) ^{ab}	3.25	.047

주. 단위 : 평균(표준편차)

결과 및 논의

재판내용 및 전문가 증언내용 기억력

재판내용에 대해 모의배심원들 중 79.9%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하였으며 전문가의 증언 내용에 대해서는 모의배심원들 중 70%가 정확하게 기억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상대적인 처치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배심원의 의사결정

목격자 증인에 대한 배심원의 신뢰도

목격자 신뢰도 총점을 분석한 결과, 전문가 증언을 읽지 않은 집단은 3.85점(표준편차=1.45), 검사 측 전문가 증언이 제시된 배심원집단은 4.53점(표준편차=1.36), 변호인 측 전문가 증언이 제시된 배심원집단은 3.93점(표준편차=.80)으로 나타났다. 목격자에 대한 배심원의 신뢰도에 대한 One-Way ANOVA 분석을 한 결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43)=3.25, p<.05$). 이들 집단 간의 차이가 어디서 나타났는지를 보기 위해 다시 대비분석(Contrast)한 결과(표 2), 전문가 증언을 읽지 않은 배심원 집단과 검사 측 전문가의 증언을 읽은 배심원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53, df=42, p<.05$). 즉, 전문가 증언을 읽지 않은 배심원집단($M=3.85$) 보다 검사 측 전문가의 증언을 읽은 배심원집단($M=4.53$)이 목격자 증인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변호인 측 전문가의 증언을 읽은 배심원집단과 전문가 증언을 읽지 않은 배심원집단에서는 목격자 증인에 대한 신뢰도에 차이가 없었다.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유죄비율을 살펴보면(표 3), 검사 측 전문가의 증언을 읽은 배심원집단이 11명

표 3.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유·무죄 판결

	전문가 증인 없음	검사 측 전문가 증인	변호인 측 전문가 증인
유죄	5(33.3)	11(73.3)	3(20)
무죄	10(66.7)	4(26.7)	12(80)

주. 단위 : 명(%)

(73.3%)으로 가장 높았고, 전문가 증언을 읽지 않은 배심원집단이 5명(33.3%), 변호인 측 전문가 증언을 읽은 배심원집단이 3명(20%)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 확신도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 확신도를 분석하기 위해 One-Way ANOVA 분석을 하였으나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타분석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주는 기타 요인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기타분석에는 검사 및 변호인의 신문기술과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 간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실험의 모의재판 비디오에서 검사와 변호인이 다른 사람이고 검사와 변호인의 신문기술 또한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심원의 편향은 없었는지 그리고 검사와 변호인의 신문기술이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설문지 문항들은 검사와 변호인의 신문을 들은 후 검사 및 변호인의 신문이 설득력이 있었는지, 예리했는지, 공격적이었는지, 진부하였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전문적이었는지에 대해 7점 척도를 사용하여 물었다.

검사 및 변호인의 신문 기술이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유죄판단에 미치는 영향

본 실험의 모의재판비디오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신문 기술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 증언을 읽지 않은 집단을 대상으로 *t*검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검사와 변호인의 신문기술 간에 예리함, 공격적, 전문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18, df=13, p<.05, t=2.39, df=13, p<.05, t=2.75, df=13, p<.01, t=2.32, df=13, p<.05$). 모의배심원들은 변호인의 신문기술보다 검사의 신문기술이 더 예리하고 공격적이며 전문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들 차이가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검사의 신문이 설득력이 높을수록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유죄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변호인의 신문은 설득력이 높을수록 공격적일수록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무죄판단과 관련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전문가 증언이 목격자에 배심원의 대한 신뢰도와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결과는 검사의 신문기술이 변호인의 신문기술보다 더 예리하고 공격적이고 전문적이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검사 측 전문가 증언을 읽은 배심원집단은 유죄판단을, 변호인 측 전문가 증언을 읽은 배심원집단은 무죄판단을 더 많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목격자에 대한 배심원의 신뢰도 측면에서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미국배심원들의 경우 목격자의 증언을 80%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 한국배심원들은 평균보다 낮은 3.83의 점수에 미쳐 목격자의 증언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사 측 전문가의 증언을 읽은 배심원집단에서는 목격자 증언에 대한 배심원의 신뢰도가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변호인 측 전문가 증언을 읽은 배심원집단과 전문가 증언을 읽지 않은 집단 간에 목격자 증언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이유를 추측해 보면, 전문가 증언을 읽지 않은 배심원집단에서 목격자 증언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변호인 측 전문가 증언을 읽은 집단에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 질 수 있다.

그러나 연구 1의 결과가 검사 측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고 변호인 측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들 전문가 증언에 대한 반대신문도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연구결과들이 나왔을 수 있다는 설명이 제기되었다.

연구 2

연구 목적

연구 1에서 지적된 제한점들을 바탕으로 연구 2에서는 검사 측에서만 전문가 증언을 내세웠을 때, 변호인 측에서만 전문가 증언을 내세웠을 때 그리고 이들 각각 전문가 증언에 대해 반대신문이 있을 때 목격자에 대한 배심원의 신뢰도와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이 연구 1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배심원의 의사결정에 강력히 미치는 전문가 증언에 대한 상대방의 반대신문이 없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대신문의 유무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반대신문의 강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전문가가 증언한 글을 주기 전에 모의배심원들에게 검사 측 전문가 증언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증언하고 변호인 측 전문가 증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증언한다는 설명을 제시하였다.

방 법

피험자

본 연구는 강원도 춘천 소재의 H대학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배심원의 의사결정 특징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실험에 참가하였다. 심리학 수업을 듣는 총 60명의 실험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배심원 자격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 즉, 만 20세 미만의 실험 참가자는 모집단계에서 제외시켰다. 실험참가자들 중 여성배심원은 41명(68.3%), 남성배심원은 19명(31.7%)이며 연령대는 20~21세가 36명(60%), 22~25세 24명(40%)이다.

절차

본 연구의 실험설계는 2(전문가 증언 : 검사 측, 변호

인 측)×2(반대신문 강도 : 강함, 약함) 피험자 간 설계이다. 피험자들은 각각의 조건에 무선할당 되었으며 모든 실험은 실험실에서 진행되었다.

한번에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 수는 2~7명이며 실험 소요시간은 총 70분이 소요되었다. 각각의 조건에 할당된 피험자들은 공통적으로 연구 1에서 사용된 강도살인사건 모의재판 비디오를 보았다. 피험자들은 모의재판 비디오를 보고 난 뒤 각각의 조건에 맞는 전문가 증언 진술문을 읽었다. 이 전문가 증언 진술문은 주신문을 통해 나온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반대신문을 통해 나온 전문가의 의견이 포함되었고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재판에서 검사, 변호인, 전문가 증언 그리고 재판장이 서로 오가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이 전문가 증언 진술문을 모두 읽은 피험자들은 연구 1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실험처치

전문가 증언에 대한 반대신문

연구 1의 전문가 증언은 주신문을 통해 나온 전문가의 의견이다. 연구 2에서는 전문가 증언에 대한 반대신문을 포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 1에서 사용된 전문가 증언 진술문을 그대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반대신문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였다. 형사소송법 161조 2의 1항에 의거하면, 반대신문이란 주신문이 끝난 뒤에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의 상대방이 하는 신문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재판에서 반대신문이 없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반대신문의 강도에 따라 배심원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았다. 반대신문의 강도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Petty와 Cacioppo(1981)의 ELM(Elaboration Likelihood Model; 정교화 가능성 모델)에서 설득이 일어나는 2가지 경로를 중심으로 정의를 내렸다. 설득이 일어나는 2가지 경로는 중심 경로와 주변 경로이다. 중심 경로에서는 메시지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가 일어난다. 이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 태도 변화는 좀 더 강하고 지속적일 가능성이 높다(Petty et al, 1995).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증언에 대한 강한 반대신문은 중심경로를 통한 설득 즉, 메시지 내용에 초점을 맞춘 설득이 왜야한다. 여기서 메시지 내용은 전문가가 증언한 내용을 말한다. 따라서 강한 반대신문이란 전문가가 증언한 내용을 중심으로 반대신문을 하되 그 증언 내용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 허점이 중심인 신

문이다.

반면, 주변 경로에서는 주로 메시지와 관련 없는 주변 단서들에 의해 태도변화가 일어난다. 메시지와 관련 없는 주변 단서들은 전문가의 학위, 전공, 연구경력 및 연구에 대한 신뢰성 등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배경정보가 단서이다. 중심 경로와 달리 주변 경로는 최소한의 인지적 처리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태도 변화가 약하고 지속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약한 반대신문이란 주변경로를 통한 설득 즉,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배경정보에 초점을 맞춘 신문이다.

이들 반대신문의 질문 수는 각각 4개로 통일하였으며 반대신문에 대한 전문가 증언의 답변 길이나 연구결과 제시방법, 표현법 등은 모두 동일하였다.

측정도구

연구 1과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결과 및 논의

기억력 평가

배심원들은 재판내용에 대해 60%가 정확하게 기억하였고 전문가의 증언 내용에 대해서는 52.4%가 정확하게 기억하였다.

배심원의 의사결정

목격자 증언에 대한 배심원의 신뢰도

목격자 증언에 대한 배심원의 신뢰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wo-Way ANOVA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에 대한 주효과와 전문가와 반대신문 간의 이원상호작용 효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에 대한 주효과를 보면 검사 측 전문가 증언을 읽은 배심원 집단($M=4.93$)이 변호인 측 전문가 증언을 읽은 배심원 집단($M=3.57$) 보다 목격자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F(1,56)=32.96, p<.05$). 전문가와 반대신문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면(그림 1), 변호인 측 전문가 증언에 대한 반대신문이 약했을 때보다는 강했을 때 목격자에 대한 배심원의 신뢰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F(1,56)=11.75, p<.01$). 다시 말하면 검사가 변호인 측 전문가 증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때 전문가의 배경정보보다는 전문가가

표 4. 목격자 증인에 대한 배심원의 신뢰도

	반대신문	
	강함	약함
전문가 증인		
검 사	4.50(.92)	5.00(.71)
변호인	5.00(.00)	3.38(.77)

주. 단위 : 평균(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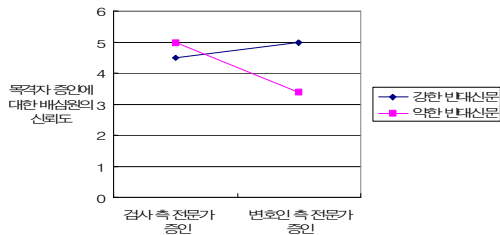


그림 1. 전문가 증인과 반대신문 간 상호작용효과

증언한 내용의 허점을 파고드는 신문이 목격자에 대한 배심원의 신뢰도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검사 측 전문가 증인의 경우에서도 전문가 증인에 대해 변호인이 약한 반대신문을 때보다 강한 반대신문을 할 때 목격자에 대한 배심원의 신뢰도에 더 영향을 많이 미쳤다.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유죄비율을 살펴보면(표 5), 검사 측 전문가 증인에 대한 약한 반대신문을 읽은 조건이 8명(53.3%), 변호인 측 전문가 증인에 대한 약한 반대신문을 읽은 조건 6명(40%), 검사 측 전문가 증인에 대한 강한 반대신문을 읽은 조건은 5명(33.3%), 변호인 측 전문가 증인에 대한 강한 반대신문을 읽은 조건은 4명(26.7%)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배심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내릴 때 전문가 증인에 대한 약한 반대신문보다 강한 반대신문이 배심원들에게 더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전문가 증인에 대한 연구경력, 전공 등의 배경정보보다는 전문가 증언내용의 허점을 파고드는 신문이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5.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

		반대신문	
		강함	약함
검사 측 전문가	무죄	10(66.7%)	7(46.7%)
	유죄	5(33.3%)	8(53.3%)
변호인 측 전문가	무죄	11(73.3%)	9(60%)
	유죄	4(26.7%)	6(40%)

주. 단위 : 명(%)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 확신도

Two-Way ANOVA 분석을 한 결과, 전문가에 대한 주효과, 반대신문에 대한 주효과 그리고 전문가와 반대신문 간의 상호작용효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에 대한 주효과를 보면, 검사 측 전문가 증인을 읽은 배심원집단이 변호인 측 전문가 증인을 읽은 배심원집단보다 피고인에 대한 자신의 유무죄 판단을 더 확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55)=8.74, p<.01$). 반대신문에 대한 주효과와 경우, 전문가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약했을 때보다 강했을 때 배심원들은 피고인에 대한 자신의 유무죄 판단을 더 확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55)=1.99, p<.01$). 그리고 전문가와 반대신문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보면($F(1,55)=9.77, p<.01$), 변호인 측 전문가 증인

표 6.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 확신도

	반대신문	
	강함	약함
검사 측 전문가	5.11(.93)	5.00(1.07)
변호인 측 전문가	5.17(.58)	3.0 (.00)

주. 단위 : 평균(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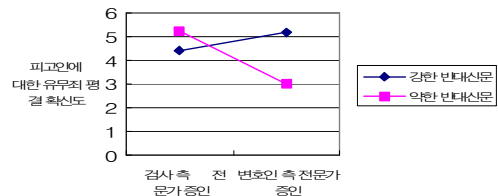


그림 2. 전문가와 반대신문 상호작용효과

에 대해 약한 반대신문을 했을 때보다 강한 반대신문을 했을 때 배심원들은 피고인에 대한 자신의 유무죄 판단을 더 확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측 전문가 증인의 경우에도 변호인이 전문가 증인에 대해 약한 반대신문을 했을 때보다 강한 반대신문을 했을 때 배심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자신의 유무죄 판단을 더 확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배심원들은 전문가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약했을 때보다는 강했을 때 목격자에 대한 배심원의 신뢰도와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에 더 많은 태도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전문가의 학력, 연구경력 등 배경정보보다는 전문가 증언 내용의 취약점을 내세운 신문방식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배심원의 태도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연구 3

연구목적

연구 2에서는 한 쪽 전문가만 있을 때 그리고 그 전문가에 대한 반대신문이 있을 때 배심원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그러나 이들 전문가가 모두 있을 때 배심원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연구 3에서는 양측 전문가 즉, 검사 측, 변호인 측 모두에서 전문가 증인을 내세웠고 전문가에 대한 상대방의 반대신문이 있었을 때 배심원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방 법

피험자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춘천 소재의 H대학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배심원의 의사결정 특징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심리학 수업을 듣는 총 60명의 실험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배심원 자격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 즉, 만 20세 미만의 실험 참가자는 모집단계에서 제외시켰다. 실험참가자들 중 여성배심원은 45명(75%), 남성배심원은 15명(25%)이며 연령대는 20~23세가 50명(83.3%), 24~26세 6명(10%), 30~34세 4명(6.6%)이다.

절차

본 연구의 실험은 2(검사의 반대신문 강도 : 강함, 약함)×2(변호인의 반대신문 강도 : 강함, 약함) 피험자 간 설계로, 피험자들은 각각의 조건에 무선할당되었으며 모든 실험은 실험실에서 진행되었다.

한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 수는 2~7명이며 실험소요시간은 총 70분이 걸렸다. 각각의 조건에 할당된 실험참가자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연구 1, 2에서 사용한 강도살인 사건 모의재판 비디오를 보았다. 재판 비디오를 본 실험참가자들은 각각의 조건에 맞는 전문가 증언 진술문을 읽는다. 이 전문가 증언 진술문은 연구 1, 2와 마찬가지로 이야기체형식으로 작성된 스크립트로 되어 있다. 그러나 연구 1, 2와 달리 연구 3의 실험참가자들은 양측 전문가의 증언을 모두 읽는다. 즉, 양측 전문가가 모두 증언으로 나왔을 때 재판 절차 상 검사 측 증언을 먼저 세우고 난 뒤에 변호인 측 증언을 세운다. 먼저 검사 측 증언을 세우면 전문가 증언을 세운 검사 측의 주신문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 증언에 대한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가 끝나면 변호인 측 증언이 나오고 증언을 세운 변호인 측의 주신문이 이루어진 다음 이 증언에 대한 검사의 반대신문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온 전문가 증언 진술문을 실험참가자들이 읽게 되는 것이다. 이 진술문을 모두 읽은 뒤 실험참가자들은 설문지를 작성한다.

처치

연구 2에서 사용된 전문가 증언 내용과 반대신문 내용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각 조건에 맞게 구성하였다.

측정도구

연구 1과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결과

재판내용 기억력

재판내용 기억력에 대한 빈도분석을 한 결과, 배심원들은 목격자의 증언 내용 및 검사 그리고 변호인의 신문 내용에 대해 53.3%가 정확하게 기억하였다. 전문가의 증언 내용에서는 46.7%가 정확하게 기억하였다.

배심원의 의사결정

목격자 증인에 대한 배심원의 신뢰도

실험조건에 따른 목격자 증인에 대한 배심원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Two-Way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검사 반대신문에 대한 주효과, 변호인 반대신문에 대한 주효과, 검사의 반대신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 상호작용효과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에서 집단 간 유·무죄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 확신도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 확신도를 분석한 결과 검사의 반대신문 주효과, 변호인의 반대신문 주효과, 검사 반대신문과 변호인 반대신문 간 이원상호작용효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 논의

배심원은 목격자의 증언을 약 80% 신뢰한다고 한다(Wells, Lindsay, & Ferguson, 1979). 이에 대한 신념은 배심원뿐만 아니라 검사, 변호인 그리고 다른 법조계 사람들 또한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미국 법무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NIJ)에서는 범인을 목격한 목격증인의 증언이 부정확할 수 있다고 밝힌다. NIJ는 강간, 살인, 유괴 등 중대한 범죄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40명의 사람들을 DNA 분석하였다. 이들의 DNA 분석 결과, 40명 모두 부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명의 사람들 중에 36명(90%)은 1명 이상의 목격자들이 범인을 잘 못 식별하여 부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Connors, Lundregan, Miller, & McEwan, 1996). Innocence Project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잘못된 범인식별절차는 목격자의 기억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목격자가 범인을 회상하는 과정에 혼선을 주어 목격자가 범인을 올바르게 식별할 수 없게 만든다고 보고한다. 이런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들은 목격자가 잘못된 범인식별절차에 따라 범인을 지목하였

을 때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확신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렇듯 목격자의 증언에 관한 신빙성 평가와 이에 대한 전문가의 증언은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과 직결되는 만큼 중요한 법적 그리고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총 3개의 개별 연구로 진행되었다. 연구 1에서는 검사 측 전문가 증언을 읽은 배심원집단, 변호인 측 전문가 증언을 읽은 배심원집단과 전문가 증언을 읽지 않은 배심원집단 간의 비교를 통해 목격자에 대한 배심원의 신뢰도와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전문가 증언을 읽지 않은 배심원집단보다 검사 측 전문가 증언을 읽은 배심원집단이 목격자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피고인에 대한 유죄비율도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변호인 측 전문가 증언을 읽은 배심원집단과 전문가 증언을 읽지 않은 배심원집단에서는 목격자 증언에 대한 신뢰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 증언을 읽지 않은 배심원집단에서 목격자 증언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변호인 측 전문가 증언을 읽은 집단에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 질 수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배심원들이 목격자의 증언을 80% 신뢰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지만 이 연구를 통해 한국의 배심원들은 평균보다 낮은 3.83에 미쳐 목격자의 증언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변호인 측 전문가 증언을 읽은 배심원 집단이 전문가 증언을 읽지 않은 배심원집단보다 무죄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 1를 통해 전문가 증언이 목격자에 대한 배심원의 신뢰도와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구 1은 전문가 증언에 대해 타격을 줄 수 있는 반대신문이 없고 전문가가 자신이 대변하는 검사 또는 변호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배심원들이 몰랐기 때문에 위와 같은 연구결과가 나왔다는 의의제기를 받았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자는 연구 2와 연구 3에서 모의배심원들에게 검사 측 전문가 증언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변호인 측 전문가 증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다는 설명을 제시하였고 전문가 증

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있을 때 연구 1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구 2에서는 검사 측에서만 전문가 증언을 내세웠을 때, 변호인 측에서만 전문가 증언을 내세웠을 때 그리고 이들 각각 전문가 증언에 대해 반대신문이 있을 때 목격자에 대한 배심원의 신뢰도와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이 연구 1과 다르게 나타나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3에서는 양측 전문가 측, 검사 측, 변호인 측 모두에서 전문가 증언을 내세웠고 전문가에 대한 상대방의 반대신문이 있었을 때 배심원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2의 결과에서는 변호인 측 전문가 증언에 대한 검사의 반대신문이 약했을 때보다는 강했을 때 목격자에 대한 배심원의 신뢰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검사 측 전문가 증언의 경우도, 변호사의 반대신문이 약했을 때보다는 강했을 때 목격자에 대한 배심원의 신뢰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서는 비율 차이가 작지만 검사 측 전문가 증언에 대한 반대신문이 약했을 때보다는 강했을 때 무죄비율이 더 높았고 변호인 측 전문가의 경우에는 전문가에 대한 반대신문이 약했을 때보다 강했을 때 유죄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구 3의 결과에서는 양측 전문가 증언에 대한 반대신문이 목격자에 대한 배심원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런 연구결과들은 재판내용, 전문가 증언 내용에 대한 기억력 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보였고 검사 측 그리고 변호인 측 전문가 증언이 비디오가 아닌 스크립트 형식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증언을 혼동하였을 수 있다. 이런 혼동은 어느 전문가의 증언이 목격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인지를 배심원이 판단할 수 없게 만들었을 수 있다.

이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연구 1에서 전문가의 증언이 목격자에 대한 배심원의 신뢰도와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다. 연구 2에서는 연구1의 결과가 검사와 변호인의 반대신문의 영향으로 배심원의 의사결정이 연구 1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전문가 증언에 대한 반대신문이 약했을 때보다 강했을 때 목격자에

대한 배심원의 신뢰도와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더 많이 준다는 것을 알았다. 이는 전문가 증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때 전문가의 연구경력, 연구의 신뢰성에 대한 지적보다는 전문가의 증언 허점을 파고드는 신문이 더 배심원들에게 설득력있고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연구 3에서 전문가 증언에 대한 반대신문이 목격자 증언에 대한 배심원의 신뢰도와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이들 결과를 통해 양측 전문가 증언이 나올 경우 배심원들이 양측 전문가들의 증언을 혼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양측 전문가들 모두 법정에서 말을 중심으로 의견을 내세우는 것이 배심원들의 이해를 돕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실제 재판과정의 배심원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험자들의 몰입도가 낮을 수 있고 연구 대상이 대학생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다. 둘째, 실험피험자들에게 제시한 증인과 증거가 다양하지 않고 목격자 증언과 전문가 증언에만 초점이 맞추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셋째, 기존의 모의재판비디오에서 등장하는 검사와 변호인이 서로 다른 객체이기 때문에 목소리 톤이나 말의 억양 등을 통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성별, 다양한 연령층,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증인과 증거가 있을 때도 전문가 증언의 영향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비록 위의 연구결과들이 몇몇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 연구결과들은 지금 현재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마련하는데 있어 몇몇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첫째, 전문가 증언이 배심원들에게 영향을 주는 만큼 전문가 증언이란 어떤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이고 어떤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 2를 통해 전문가 증언에 대한 반대신문이 연구자의 연구경력이나 목격자 연구의 신빙성에 대한 지적보다는 재판에서 이슈가 되는 내용 즉, 목격자의 기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법정에서 목격자 기억에 미치는 요인들 중에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그 요인들

을 법정에서 증거로서 내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박광배 (2004). 목격자와 증인 진술의 정확성. 한림응용심리연구소 워크샵, 21-65.
- Connors, E., Lundregan, T., Miller, N., & McEwan, T. (1996). Convicted by juries, exonerated by science : case studies in the use of DNA evidence to establish innocence after trial. Alexandria, VA :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 Cutler, B. L., Penrod, S. D., & Dexter, H. R. (1989). The eyewitness, The expert psychologist, and The jury. *Law and Human Behavior*, 13, 311-332.
- Cutler, B. L., & Devenport, J. L. (2004). Impact of defense-only and opposing eyewitness experts on juror judgements. *Law and Human Behavior*, 28, 569-576.
- Eyewitness Misidentification. Retrieved October 3, 2007, from [http : //www. innocentproject.org/understand/Eyewitness-Misidentification.php](http://www.innocentproject.org/understand/Eyewitness-Misidentification.php)
- Fox, S. G., & Walters, H. A. (1986). The impact of general versus specific expert testimony and eyewitness confidence upon mock juror judgment. *Law and Human Behavior*, 10, 215-228.
- Hosch, H. M., Beck, E. L., & McIntyre, P. (1980). Influence of expert testimony regarding eyewitness accuracy on juror decisions. *Law and Human Behavior*, 4, 287-296.
- Katzev, R. D., & Wishart, S. S. (1985). The impact of judicial commentary concerning eyewitness identifications on jury decision making. *Th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6, 733-745.
- Kassin, S. M., Tubb, V. A., Hosch, H. M., & Memon, A. (2001). On the “general acceptance” of eyewitness testimony research : A new survey of the experts. *American Psychologist*, 56, 405-416.
- Loftus, E. F. (1980). Impact of expert psychological testimony on the unreliability of eyewitness identific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5, 9-15.
- Maass, A., Brigham, J. C., & West, S. G. (1985). Testifying on eyewitness reliability. Expert advice is not always persuasiv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5, 207-229.
- Petty, R. E., & Cacioppo, J. T. (1981). Attitudes and persuasion : classic and contemporary approaches. Dubuque, LA : Wm. C. Brown.
- Petty, R. E., Haugtvedt, C., & Smith, S. M. (1995). Elaboration as a determinant of attitude strength : Creating attitudes that are persistent, resistant, and predictive of behavior. In R. E. Petty & J. A. Krosnick(Eds.), *Attitude strength : Antecedents and consequences*(pp.93-130). Mahwah, NJ : Erlbaum.
- Wells, G. L., Lindsay, R. C. L., & Ferguson, T. (1979). Accuracy, confidence, and juror perceptions in eyewitness testimon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4, 440-448.
- Wells, G. L., Lindsay, R. C. L., & Tousignant, J. P. (1980). Effects of expert psychological advice on human performance in judging the validity of eyewitness testimony. This issue, *Law and Human Behavior*, 4, 275-285.

The Effects of Expert Testimony about Eyewitness Memory on Jury Decision Making

So Yeon Jo Eun Kyung Jo

Hallym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ed to test the effects of expert testimony about eyewitness memory on juror decision making. Three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In all studies participants were shown a part of mock jury trial video which was recorded on August 26, 2004 and run by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Judicial Reform. The purpose of study 1 was to study the effect of expert testimony about eyewitness memory on juror decision making. In the study 1, 45 stude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ree experimental conditions (no expert, defence-only expert, prosecuting attorney-only expert). Results of study 1 showed that participants in the prosecuting attorney-only expert condition were more likely to believe the eyewitness and gave the defendant higher guilty ratings than those in no expert condition. Participants in the defense-only expert condition were less likely to give the defendant higher innocence ratings than those in the no expert condition.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eyewitness credibility ratings. Study 2 was designed to examine the effect of cross-examination about expert testimony on juror decision making. 60 stude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2 (strength of cross-examination : weak vs. strong) × 2 (expert testimony : defense-only expert vs. prosecuting attorney-only expert) experimental conditions. As a result, Jurors in the strong cross-examination condition about defense-only expert were more likely to believe eyewitness and gave the defendant higher guilty ratings than the weak cross-examination condition. Study 3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cross-examination when prosecution and defense both call for expert witnesses on jury decision making. 60 students participated in study 3.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experimental conditions in guilty or innocent ratings about the defendant and in eyewitness credibility ratings.

Keywords: Expert testimony; cross-examination; juror decision making; eyewitness credibility; expert witness credibility

1차원고 접수일 : 2008년 6월 16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08년 8월 24일
게재 확정일 : 2008년 8월 25일